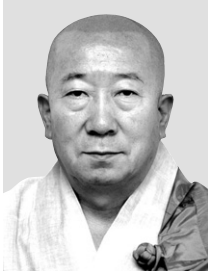


“흐트러진 자세와 혼란한 마음 참회를”

고통의 구석진 곳 살피길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부처님께서 설하신 10중대계 중 일곱 번째 자잔훼타계(自譴毀他戒)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칭찬하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민의 뜻을 대신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동네 골목마다 그리고 거리에서 상대 후보들을 비난했는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사회의 율법과 도덕적 가치를 깨뜨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진리를 구하되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분오열된 흐트러진 자세와 혼란스런 마음을 참회하며 기도 정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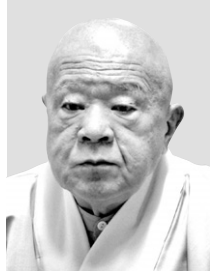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뜻입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환희롭게 봉축하며, 고통과 괴로움의 구석진 곳을 살피고 감사하십시오.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자

(사)대한불교원유원(종)

종정 일공 스님



붓다는 우리 인간계에 태어나셔서 천상천하(天上天下)에 가장 거룩한 대도사이신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치의 탐조력과 이성의 창조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붓다가 된다는 인간 성불(人間成佛)의 비법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기계화 야수화 악마화한 인류를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다시 교화하고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불교도에 주어진 세기적 지상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실된 인간성의 되찾기 운동은 부처님의 교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밝고 신명하여 지극히 미묘하고 신비로운 불성(佛性)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개발하여 되찾으면 다 붓다가 된다는 이 거룩한 교훈을 다시 반성하고 경각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 사자후 기억하라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자기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 수행 정진하는 출가 사문들이여! 부처님의 첫 사자후를 기억하는가? 부처님의 품안에 안주한 불자들이여 녹야원의 첫 설법, 교화의 일성을 배웠는가?

나는 모든 것을 이겼노라. 모든 것을 알았노라. 모든 것을 놓았노라. 모든 것에 걸림이 없노라. 모든 애착과 욕망을 끊고 스스로 진리를 알았노라. 내게는 나 자신밖에 따로 내 스승이 없노라.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불가에 몰아닥친 시련은 자신을 더더욱 성숙시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추위와 큰 시련속에 핀 설총매의 꽃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난 속에 핀 꽃(인연)은 소중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초발심의 계기로 삼고 더 큰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참회하는 절실한 마음과 행으로 파내도 파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 목마름의 고통을 여의는 자비의 손길을 보내 중생을 감동시키는 말씀리는 고행에 앞장서는 불제자가 됩시다.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부처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의 돈 봉투 논란도 원인은 탐심 때문이요. 밀정한 대낮에 어머니를 해코지한 아들도 성냄 때문이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되풀이 하면서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보면 해결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의 근원을 만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가 평화로운 곳일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깨우친 삶을 찾는데 마음의 정성을 다할 것을 발원합시다.

참회의 일등을 밝힙시다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해안 스님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날, 일체 중생은 불성(佛性)이 있다고 중병 환자에 여진의사로

어두운 밤길에 등불처럼 이 땅에 오셨네. 육십갑자는 일곱 번 변하고 임진년 1592년 햇빛승복에 뿌린 구국(救國)의 피의 인과를 참회 하옵니다.

광화문 종로 네거리에 빗속에 얼드려 참회(懺悔)하는 승려의 피눈물이 장삼을 물들이고 만국의 대종이 모인 여수 앞바다에서 흑룡(黑龍)이 불을 토하면 그날의 구국(救國)을 들어 해원(解冤)의 빛을 건지오리다.

이제 당신 부처님오신날 뒷산 칠성봉(七星峰)과 앞산 구재봉(龜在峰)에 어둠이 내리면 지리산 빈승은 참회의 일등(一燈)을 켜오리다. 음. 살바뭇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가정과 국가에 광명을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스님



世尊十方界 常放 大光明
比如千日出 照曜 大千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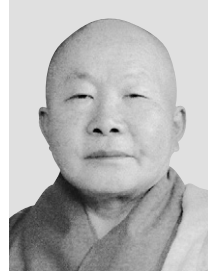
세존께서 시방세계 크신 광명 항상 나투도다 마치 천개의 태양이 뜬 것 같아서 온누리를 밝게 비추시는 도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야성과 야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혁신을 통하여 남과 이웃을 위하고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보리심 모두 내어 지극한 정성으로 등불을 밝혀 국가와 가내에 부처님 광명과 가호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심선자비행으로 성불을

(사)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을 남기고 가신지 2556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생명의 평등을 선포하시고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로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불자이기에 누구나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성불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부처이니 신구의로 지은 십약을 참회하고 매순간 깨어 미륵보살의 심선 자비행으로 모두 부처가 됩시다.

자신을 맑히고 밝히어 세상을 이롭고 향기롭게 하는 진정한 불자가 됩시다.

일체여래는 진여성품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해인 스님



過去七佛 清淨戒律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戒律清淨 毘盧遮那佛
戒律圓滿 盧舍那佛
人間萬物 根本 萬法 主人公
人間諸法 主人 萬物 創造者
一切如來 眞如性
山川草木 實相 日月星神 本來面目

인간은 만물중에 근본이며 만법의 주인공이요이다. 인간은 모든 법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주이다. 일체 여래는 진여의 성품이요. 산천초목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며 우주만물은 본래의 면목이요이다. 부처님들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을 일러 불교라 한다.

자성밝혀 스스로 행복 찾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생사거례의 은연법을 밝히기 위해 지금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법과 마음은 증득함이 없으니 성냄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자성(自性)을 밝혀 스스로 행복을 찾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석가세존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지니고 있는 소중한 부처님을 찾아 인류를 행복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연등을 환하게 밝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명(無明)에서 반야(般若)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듯,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서로의 진실된 마음의 연등을 가슴속 깊이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가정을 위해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자리 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회 이룩시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進歩非近遠(진보비근원)
迷隔山河固(미격산하고)
謹白參玄人(근백참현인)
光陰莫虛度(광음막허도)

부처님 조사들은 그 길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지만 끝까지 가고 아니기는 것은 각자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현성공안(現成公案)하며 해탈성불(解脫成佛)하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고루 퍼져 어두운 곳엔 광명을 알때인 이에게는 자유를 가난한 이에게 풍요를 고통 받는 이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진리에 어두운 일체중생들의 무거운 업장을 떨쳐 버리고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참믿음은 실천행 따라야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참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信心真心)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인지, 한 번 돌아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 쥐고 승복을 입고 있다 해서 모두 출가 제자라 할 수 있는가? 또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참한다고 해서 재가 신도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실천행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불자일수 있는가? 일 년에 한번 있는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바른 불교 바른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불향으로 처처극락 이뤘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전계대화상 능인 스님



一念普觀法界性(일념보관법계성)
無去無來亦無座(무거무래역무좌)
如是了知三世界(여시요지삼세계)
超諸方便成佛力(초제방편성시방)

한 생각으로 법계의 진리를 관찰해 보니 감도 없고 욕도 없고 또한 앓음도 없네.

이와 같이 삼세과를 요달해 보면 모든 방편을 뛰어넘어서 부처가 이루어지리라.

육도중생은 오락약세를 벗어나고 생사윤회는 삼계고해를 벗어나서 사바세계에 불종자 무루 심어지면 너나 할것없이 본래 부처로 돌아가 그윽한 향기로 처처극락을 이루리라.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하자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표어는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Peace to our Mind. Happiness to our World)'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반목과 질서가 넘쳐나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마음에 평화를 간직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원력이 담겨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수행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한 후 평생 전법(傳法)의 길에서 실천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행복'이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고평화 속에 평정신이 깃들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속에 세상 만물의 존중과 생명평화의 행복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자신이 참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베푸는 순간 참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슴 깊이 박혀 있던 사랑의 뿌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깨내어서 베풀면 참사랑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한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바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본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과 같이 지내 왔던 것입니다. 본마음을 보았다는 것은 욕심 덩어리가 없어진 것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본래 청정했던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 보살피면서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해 나간다면 바로 그 세상이 평화의 세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입니다.

모든 중생심이 부처다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흥 스님



佛祖從天東來(불조종서천동래)
唯傳正法眼藏法(유전정법안장법)
直指一切衆生心(직지일체중생심)
本來處處是佛(본래처처사시불)

부처님이 인도로부터 동토에서 온 것은 오로지 정법안장의 법을 전하여 모든 중생심이 부처임을 곳곳에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네. 우리 모두는 자리이타 자각타정신을 일깨워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미혹한 중생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항상 멀리서 찾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보지 못하니 얼마나 딱한 일일까요. 이제 우리불자님들은 부처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오신 뜻을 다시금 되새겨서 불법을 흥포하는데 주저치 않아 하겠습니까.

전법도 좌선도 모두 불법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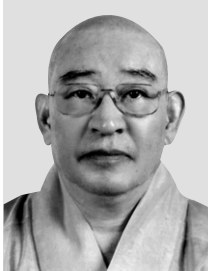
悠悠傳法非爲法(유유전법비위법)
坐寂無事不是禪(좌적무사불시선)
更將明眼回頭視(경장명안회두시)
依舊完全是法禪(의舊完全是法禪)

유유히 전하는 법 법이 아니요. 일없이 앉아 있음 선이아니로다. 다시 눈을 밝혀 돌아보니 전법도 좌선도 틀림없는 법과 선이로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의 지혜가 곧 부처”

행함의 완성이 곧 깨달음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각호 스님



흔히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르면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완성이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고통 받는 중생을 다 구한 다음 내가 성불(成佛)하겠노라고 한 지장보살의 서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으나 행의 축적 뒤에 깨달음이 옵니다. 한마디로 보리심(菩提心),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서 출발해서 보리심을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수행은 이웃을 위해 보리심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참고 인내하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항상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제 잘 살펴서 갈 줄 알아야 한다. 넘어지고 다쳐도 참고 인내하며 오지 않았는가.

배고픈 중생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중생에게는 약을 주는 참불자가 되어 봅시다.

사바세계에 부처님 오심은 만 중생에 평화를 가르치심이니 우리 모두 고요한 답수처럼 조용히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무명 밝혀 다 함께 성불을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燃燈供養殊勝行(연등공양수승행)
無邊勝福皆廻向(무변승복개회향)
普願沈溺諸衆生(보원침익제중생)
速往無量光佛刹(속왕무량광불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중생들이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나 빨리 무명을 밝혀서 지혜롭게 불성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불교는 진정 지혜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의미는 무명을 태워 없애고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비록 연등안으로 미혹과 무명을 다 걷어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등불에 불을 밝혀서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 다함께 성불을 이룹시다.

자비축복 원만한 봉축을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월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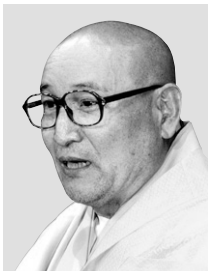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의 때를 씻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법바다에 들어가게 하기위하여 부처님은 법을 설하여주셨으니, 세존의 가르침이신 이법을 받들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기억하며 선정과 지혜에 머물러 부처님 탄신을 모두 다 찬탄하고 기뻐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들은 깨달아서 중생을 인도하며 고난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거두어서 부처님 가까이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체 모두가 반야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옵고 부처님 큰자비의 축복이 원만한 것입니다.

하심하는 인격자가 되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勿以貴己而賤人(물이지귀이천인)
勿以自大而蔑小(물이지대이멸소)
勿以恃勇而輕敵(물이지용이경적)
勿以自佛己而佛(물이지불기이불)

자신은 귀하게 여기면서 남을 천대하지 말고
자신이 크다 하여 남을 작다고 멸시하지 말며
용감하다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모두 부처님 세상 만들자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우리들 본래면목이 밝고 깨끗한 불성 생명임을 깨우쳐 주시고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모든 생명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스러운 생생입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내뿜어 같이 사랑하여 이 땅위에 다같이 살기좋은 부처님 세상 되도록 합시다.

중생 새로 태어난 영광을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有智苦聞하면 則能信解하고
無智疑悔하여 則爲永失이라
지혜있는 이가 만일 들으면 곧 능히 믿어 해득 할 것이나
지혜없는 자는 곧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되리라.

부처님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건지시러 이 사바세계에 자비의 화신으로 출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 중생들도 새로 태어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화합하고 양보하며 살자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심곡 스님



불자 여러분!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시며 사생육도의 아버지이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어둠 밝혀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륜 스님



번뇌와 무명 속에 고통 받는 인간과 일체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이어져 있어 밝은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체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온 누리에 환희 비추는 부처님오신날을 발원합니다.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자비의 손길을 나누시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일 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갖추어진 행복을 찾아 내지 못한 채 외부의 행복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친 날개짓을 잠시 거두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새들에게 숲과 동자가 필요하듯이 어둠과 그늘진 곳에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희망과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대자비 광명이 함께하길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부처님 강탄을 봉축합니다. 불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깨닫고 중생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찌 살아야 하다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처님오신날을 경축 하오며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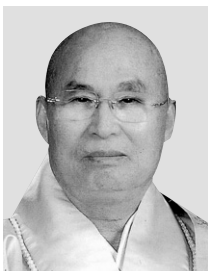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제왕의 사문이며, 수행자여, 불자시여, 소리없는 그 소리 귀키는 들어보소. 사자검대기 덮어쓰고 불자 노릇하는 이는 불법진리 잘못 인식하는 순간 이 세상 망치니. 그것은 눈멀고 귀가 먼 연고는 또 아닌가. 엄정의 경중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경이 이르기를 지지불신 언자불지라네.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모르면서, 변론하기 좋아 하는 그놈은 웬놈이며, 행복도 불행도 나의 공덕 바로보고 정신이 건강하면 만물이 아름답네.

만족할 줄 알면 욕됨 없다

(사)통합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初發心을 生覺하면서 知足不辱하고 知止不殆하여 可以長久니라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장구할 것이다. 즉, 재물과 권력 명성을 많이 쌓을수록 더욱 허망하다는 것이다. 늘 초발심을 생각 하면서,

하늘과 땅에 비추어 보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일이라면 비록 어렵고 실패할 일이라도 용감하게 추진하여라. 길이 가시밭이라 하더라도 참고 가야한다.

부처님 나신 참뜻 받들자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중생들이 탐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마음으로 행동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어려운 중생을 위한 일 다시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갈등과 반목을 타파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부처님께 예불 독경하여 소원성취 이루길 바라며 사랑과 봉사과 평등과 나눔을 우선하여 실천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이 세상 나오신 참뜻을 받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불 하십시오.

자비 온누리에 충만하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불법의 바다 임제종에 넘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임제종 가풍, 임제선법의 맑은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며 맑은 당대후학을 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밝은 지혜는 영원한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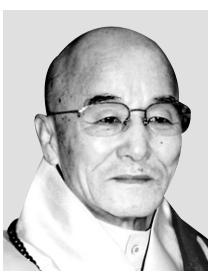
한국불교원융교단 대법주 마정 스님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하여 참다운 자기 자신은 잊고 물질 경계만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매사에 이해관계에 빠져들어서 하는 일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지혜로 영원한 생명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출현하시었습니다. 안과 밖이 없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지혜신통의 불성을 깨달아 밝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시급한 사실임을 인식하여 참나도 허비하지 말고 법음에 귀 기울여 향하는 마음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율을 지키며 화합합시다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계율을 지키므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견해를 지님으로써 화합하고 공경하며, 수행함으로써 화합하고 공경하며, 서로 예절을 지키므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바른 언행을 지님으로써 화합하고 공경하며, 서로의 뜻을 존중함으로써 화합하고 공경함을 생활화 합시다. 사부대중이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성을 깨우치고 스스로 성불의 길로 걸어 갑시다.

마음의 평화가 곧 부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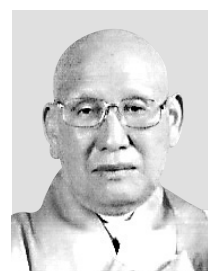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유사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모든 생명의 불성을 깨우치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리이다.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서로를 탓하며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이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인 것을 알고 자비로서 함께 합시다.

언을 법도 잃을 법도 없다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眞佛無形이니 無佛可求요,
眞道無體하니 無道可成이요,
眞法無相이니 無法可得이로다.

참다운 부처는 형상이 없으니 구할 부처가 없고, 참다운 도는 실체가 없으니 이룰 도가 없으며, 참다운 법은 꾸밈이 없으니 얻을 법도 없다.

두려워 말고 당당히 살자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영겁의 세월을 밝혀 오는 동쪽하늘 새벽 별빛은 생사의 속지 않는 노인의 소식이 아니던가?

오늘도 오고 가는 벗들마다 웃으며 권하는 한잔이여.

행여 잃을까 두려워 않는 당당한 천백 역불 모습이라네.